

호반건설, 시공능력 '전국 톱10' 진입

■ 2019 시공능력평가 2000억원 이상 광주·전남 건설사 (단위: 억원)

순위	광주 전남 (전년도)	회사명	매출액	지역
1	10(13)	(주)호반건설	4조4209	전남
2	17(22)	중흥토건(주)	1조9014	"
3	20(23)	금호산업(주)	1조5139	"
4	26(31)	제일건설(주)	1조3664	"
5	35(42)	우미건설(주)	1조2347	"
6	43(59)	중흥건설(주)	9704	"
7	48(45)	(주)라인건설	7783	"
8	64(52)	보광종합건설(주)	4845	광주
9	65(67)	(주)대광건설	4736	"
10	97(89)	금광기업(주)	2996	전남
11	98(96)	해림건설(주)	2980	광주
12	106(102)	남양건설(주)	2539	전남
13	108(95)	(주)영무토건	2527	"
14	121(138)	새천년종합건설(주)	2143	"
15	127(143)	(주)모아종합건설	2049	광주
16	130(125)	(주)우미개발	2010	"

100대 건설사 광주·전남 11곳...영무토건 100위 밖으로 시공액 2000억원 이상 16곳...중흥·금호·제일·우미 약진

호반건설이 종합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에서 올해 처음으로 전국 10위권 안에 진입했다. 광주·전남 건설업체 '빅3'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호반건설, 중흥토건, 금호산업 순이었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6만 1559개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한 결과,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주)호반건설이 4조4209억원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014년 금호산업을 제친 이후 6년 연속 1위를 독주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계열사 호반(옛 호반건설 주택)을 인수·합병(M&A)한 호반건설은 전국 순위가 3계단 상승해 10위를 차지, 올해 처음으로 '톱 10'에 진입했다.

2위는 중흥토건(주)(1조9014억원, 전국 17위), 2위는 금호산업(주)(1조5139억원,

20위), 4위는 제일건설(주)(1조3664억원, 26위), 5위는 우미건설(주)(1조2347억원, 35위)로, 지난해와 순위 변동이 없었다. 이들 상위 5개 건설사는 시공능력평가액이 1조원 이상이었다.

중흥토건 계열사인 중흥건설(주)(9704억원, 43위)이 ㈜라인건설(7783억원, 48위)을 제치고 6위에 올랐다.

지역 순위 1~7위는 모두 전남 업체였다. 광주 증경건설(주) 보광종합건설(주)(4845억원, 64위)이 8위를 차지하면서, 광주 업체로는 가장 앞섰다. 아파트 건설에서 두각을 보이고 (주)대광건설(4736억원, 65위)이 9위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전국 95위였던 (주)영무토건(2527억원, 108위)이 100위권 밖으로 밀려나면서 전국 100대 건설사 중 광주·전남 소속은 지난해보다 1곳이 줄어 11개사가

포함됐다.

100대 건설사에 든 지역 건설사들은 대부분 약진했다. 중흥토건이 22위에서 17위에 올랐고, 계열사인 중흥건설은 59위에서 43위로 16계단 경증 뛰어올랐다. 금호산업(23→20) 3계단, 제일건설은 5계단, 우미건설은 7계단 상승했다.

시공능력평가액 2000억원 이상 지역 건설사는 모두 16개사였다.

업종별 공사실적 가운데 조경에서 전남 건설업체들은 두각을 나타냈다. 중흥토건이 기성액 744억원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고, 제일건설(526억원·3위), 우미건설(505억원·4위), 호반건설(404억원·9위) 등 총 4곳이 전국 상위 10위권에 포함됐다.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택건설업체가 대부분 상위를 차지했다"면서 "시공능력평가액 6000억원 이상인 1등급 업체(1군)는 전남에서 7개사가 나왔다"고 밝혔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29.48 (-36.78) 금리(국고채 3년) 1.31 (0.00)
- ↓ 코스닥 618.78 (-25.81) ↓ 환율(USD) 1183.50 (-1.30)

광주은행, 중소기업 특별자금 3천억 지원



2019년 추석명절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 신규지원: 3천억원 / 만기지원: 3천억원
- 업체당 최대 30억원 지원 · 금리최대 1.2%p 우대

광주은행

체불임금·긴급결제 자금 등 만기연장 자금 3000억원도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추석을 앞두고 경영자금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석 중소기업 특별자금대출'로 신규자금 3000억원을 편성해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을 앞두고 지역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지역 중소기업의 노무비나 체불 임금 지급, 원자재 구입자금, 긴급결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3000억원의 만기연장자금을 함께 편성해 이 기간 중 기일이 도래한 대출금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주가 원할 경우 만기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이번 추석 특별자금대출의 업체당 지원한도는 최고 30억원 이내로, 금리는 산출금리 대비 최대 1.2%p를 우대하여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광주은행 이우경 영업추진부장은 "이번 추석 특별자금대출 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광주·전남의 대표은행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소재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지역과 상생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설에도 특별자금을 지원한 광주은행은 신규대출 2,819억원, 만기연장 4,755억원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코스닥 618.78

27개월만에 최저

코스피 2020대 후퇴

증시가 29일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의 주가는 약 27개월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5.81포인트(4.00%) 내린 618.78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2017년 4월 14일(618.24) 이후 2년 3개월여만의 최저치다.

지수 하락 폭은 '검은 10월'로도 불린 작년 10월 29일(-33.37포인트·-5.03%) 이후 가장 컸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이 7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억원, 6억원을 순매수했다.

투자자층이 얇은 코스닥 시장 특유의 수급 공백이 심화된 가운데 돈을 빌려 투자(신용거래)한 개인들의 담보 가치가 부족해지면서 증권사가 신용거래 투자자의 주식을 강제로 판 반대매매도 낙폭을 키웠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6.78포인트(1.78%) 내린 2029.48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지난 5월 29일(2023.32) 이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759억원, 638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기관은 1341억원을 순매수했다.

/연합뉴스

보해양조, 벤틀리 100주년 기념 매취순 중국 출시



임지선(왼쪽부터 네번째)보해양조 대표가 중국 벤틀리 클럽 관계자들과 협약식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보해양조 제공>

'벤틀리클럽' 회원 한정 888세트 1888위안 판매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 벤틀리(Bentley)의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한정판 매취순을 중국에 출시한다. '15주년 매취순' 등 국내 최고의 매취순을 생산하고 있는 보해는 벤틀리의 프리미엄 이미지에 걸맞은 특별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보해양조는 지난 17일 장성공장에서 베이징 벤틀리문화유산공사(이하 벤틀리클럽) 씨웅당귀(曹定) 회장과 한-중문화협력과 기념제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보해는 중국 내 1만여 명

벤틀리 자동차 소유자들이 소속된 '벤틀리클럽' 회원들만을 위한 한정판 프리미엄 제품을 생산하기로 했다.

보해는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는 벤틀리와 프리미엄 제품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협의해왔다. 그동안 벤틀리는 세계 최고의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로서 그에 걸맞은 프리미엄 기념주를 제작하기 위해 다양한 업체를 검토한 끝에 보해양조를 선택했다. 특히 내년이면 창립 70주년을 맞는 보해의 역사와 전통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해양조가 벤틀리 한정판으로 매취순을 선택한 것은 장인정신 때문이다. 지난 1919년 영국에서 설립된 벤틀리는 제품을 생산할 때 여전히 많은 부분을 수작업으로 진행할 만큼 장인정신을 유지하고 있다.

보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향과 부드러운 맛이 더해지는 매취순이 벤틀리의 장인정신과 가장 잘 어울린다고 판단했다.

벤틀리 매취순 선물세트는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숫자인 '8'에 맞춰 888세트만 생산된다. 가격 역시 숫자 '8'을 넣어서 1,888위안(약 32만 원)으로 책정됐다.

임지선 대표는 "세계 최고의 브랜드 벤틀리가 보해양조와 기념주를 만든다는 사실은 보해의 전통과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에 올랐다는 것을 증명해준다"며 "벤틀리 100주년 기념 한정판 매취순은 13억 중국 시장에서 보해양조와 매취순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실한다"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해외여행 특수' 무안공항 여행자 휴대품 검사 강화

광주세관, 내달 18일까지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번달 2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3주동안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의 휴대품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전용 통로를 이용해 신속하게 통관이 될 뿐만 아니라 관세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반면, 자진신고 하지 않고 면세범위 초과 구매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0% 가산세(2년내 2회 이상 적발시 60%)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주류 1병(1L 미화 40달러 이하), 담배 1보

루, 향수(60ml)는 기본 면세범위에서 제외된다.

특히 중국, 베트남, 몽골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병국가 입국항공편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력해 소시지, 햄 등 축산품에 대한 X-ray 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여행객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국내 면세점 또는 해외에서 구매할 합계 600달러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자진신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lion@

태양광발전소 연계 ESS에너지저장장치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태양광 발전소에 ESS 설치시 REC 가중치5.0배
- 설치방법 : 본인부담10%·용자90%
- 1년거치 14년상환 (1개월이내 설치완료)

★태양광발전사업소, 매도·매수 하실 분 상담환영 **총괄본부장 010-9896-9754**

★태양광분양 및 태양광 현재설치중, 설치완료, 개발행위완료, 선로확보, 물건 다량확보

ESS · 설계 · 시공

ESS통합시스템 15년 효율보증서 발행 (무정전 전력 공급장치)

전국 지사·대리점·영업자 모집

대표전화 1577-8963
전남지사 010-6838-3366

산·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주)성광에너지

주소 | 순천시 중앙로 317 2층
전화 | ☎061-752-7000 Fax | 061-751-6000
총괄본부장 | 010-9896-9754